

뉴섬 '범죄 억제팀' 투입 발표 인랜드 엠파이어 등에, 군 투입 우려 선제 대응

캘리포니아의 범죄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반박해온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새로운 치안 자원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소속 경찰관들로 구성된 '범죄 억제팀'을 새롭게 창설해 샌디에이고, 인랜드 엠파이어, LA, 샌트랄밸리,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등 6개 권역에서 지방정부와 협력해 범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오글랜드, 베이커스필드 등지에서 시도한 전략의 확장판이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소매 절도, 차량 절도, 마약 거래 단속을 위해 주 경찰을 투입했고, 이번 조치는 그 경험을 다른 도시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의 도시들을 청소하겠다고 군사 개입 위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새크라멘토 주 의사당 집무실에서 CHP 고위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율이 캘리포니아보다 높은 공화당 주 정치인들의 전단을 들어



▲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내 주요 도시에 CHP '범죄 억제팀'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진=kpbs.org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범죄와 폭력 문제를 신경 쓴다면, 살인율이 통제 불능 수준인 미시시피 전역에 먼저 주방위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범죄 문제는 다시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경찰력을 장악하며, "도시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연방 개입을 정당화했다. 그

러나 통계상 해당 도시의 폭력 범죄는 지난 30년간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오글랜드 등 민주당 도시들로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뉴섬 주지사는 이를 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뉴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여름 LA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해 충돌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는데, 뉴섬 주지사는 이를 불법 군사행동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부분의 병력이 철수했지만, 이번 소송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뉴섬 주지사가 내놓은 이번 '범죄 억제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캘리포니아가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CHP는 베이커스필드, 오글랜드, 샌버나디노 등에서 9천여 명을 체포하고, 5,800대에 가까운 도난 차량을 회수했으며, 400정 이상의 총기를 압수했다. 그 결과 오글랜드의 살인 사건은 34% 감소했고, 강도 사건은 25% 줄었으며, 베이커

스필드의 총격 사건은 팬데믹 이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CHP 선 더리 위원장은 "우리가 투입돼 제대로 된 경찰 활동을 하면 범죄는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연구소(PPIC) 매그너스 로프스트롬 연구원은 이러한 전략이 범죄 감소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율 변동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요 8개 도시 중 오글랜드를 포함한 3곳은 지난해 범죄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오글랜드와 유사한 감소세를 보였다.

더리 위원장은 새로 창설되는 범죄 억제팀은 최소 12~15명 규모로 편성되며, 불법 도로 레이싱이나 노상 마약 거래 등 지역 당국이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범죄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대응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차량 절도, 범죄,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푸엔테힐스에 대규모 공원 조성

60번·605번 매립지에 극장, 산책로 등 내년 완공

LA카운티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공원이 조성된다.

6일 공식 착공식이 열린 푸엔테힐스 리지널공원(Puente Hills Regional Park)은 인터스트리시 60번과 605번 프리웨이 교차로 남쪽, 리오 혼도 칼리지 동쪽에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서부 지역 최대 매립지였다.

1단계 사업은 총 1억5,7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며, LA카운티 위생국, 캘리포니

아 야생동물보전위원회, 연방 레크리에이션 유산 보조금 등 지역·주·연방 재원을 합쳐 마련됐다.

LA카운티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보도자료에서 "이 순간을 기다린 지 30년이 넘었다. 나는 바로 인근에서 자라면서 매립지의 악취와 트럭 행렬, 녹지 부족을 겪어야 했다"며 "이 땅은 한때 환경 불평등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있다. 이번 착공은 매립지 확장을 막기 위해 싸운 주민들, 공원과 깨끗

한 공기를 누릴 자격이 있는 가족들,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다음 세대를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1단계 공원에는 환경정의센터(교육 프로그램, 메이커스페이스, 팟캐스트 스튜디오, 지속가능성·레드라이닝·폐기물 역사를 다루는 전시), 입구 광장, 산책로, 원형극장, 자연 놀이 공간, 예술 광장, 반려견 공원,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토종 식생 조경, 주차장이 조성된다.

설계를 맡은 스튜디오 MLA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역의 자연미를 기념하면서 현대적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공원"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공원은 매립장은 2026년 가을 개장이 목표다. 후속 단계에는 자전거 시설, '나йки 힐' 전망대, 공원 언덕을 오르는 계단과 미끄럼틀이 있는 보행자 다리와 산책로, 추가 순환 도로와 트레일, 새로운 집회 공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8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Dr. Soung Hoon Cho
DDS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